

지역 매 아 리

완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발대식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청소년·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발대하고, 아동·청소년의 권익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완주군은 최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발대식에 아동권리지킴이 22명을 위촉했다. 아동권리지킴이는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권익증진 활동과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단장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중앙기초계획 연구실 수행한 조성경 교수(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가 맡게 된다. 더불어 전문위원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인 이승미 교수(우석대학교), 이균수 대표(주) 맥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아동권리지킴이 위촉장 수여와 '아동친화도시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이해'(이승미 교수), '아동 놀이 공간 모니터링의 이해'(이균수 대표) 등 아동권리지킴이 교육이 진행됐다. 더불어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의의를 조성경교수가 진행했다.

정재주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박준배 김제시장은 최근 민중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시설종사자들과 생활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 및 경기침체와 더불어 예년에 비해 빠른 추석명절을 맞아 생활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임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제시가 솔선해 위문함으로써 이웃사랑 실천과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관내 노인시설 및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12개소를 방문하게 됐다.

이날 위문에서 박 시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와 생활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와 함께 위문품을 각 시설에 전달하며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박 시장은 시설관계자들에게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입소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이번 추석은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추석명절 맞이 공무원 1인1가정 결연사업, 그룹홈 방문 등 소외된 이웃을 찾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축제 더 풍성하게~”

김제, 지역농산물 연계한 6차산업 선도 프로그램 청년농장·푸드트럭 운영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지역 농산물을 연계하는 6차산업 선도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해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번 축제기간 운영되는 6차산업 선도 프로그램은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고심한 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에 최근 지역혁신가로 뽑힌 청년농군 '강보람의 고구마'를 테마로 한 지평선 청년농장을 운영하고, 고구마 캐기 체험, 고구마 화분 만들기, 고구마 아이스크림, 고구마 케이크 만들기 등 고구마로 직접 즉석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김제 공덕 고구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김제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돕는다.

또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글로벌 음식부스 존을 폐지하고 지평선 청년푸드트럭 존을 신설해 김제시 농산물을 이용한 지평선 스테이크, 지평선 컵밥 등 젊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먹

을 수 있는 음식을 통해 김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박준배 시장은 "축제는 관광객에게 우리 김제를 알리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앞으로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지평선축제는 최근 실시한 축제 만족도 조사에서 관광객 만족도 1위 축제에 등극했으며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주 행사장인 벽골제에서 오감을 만족하는 101가지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가 추석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불거리와 사전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읍면동 허수아비 설치를 완료했다.

가을 알리는 허수아비 눈길

김제시, 축제분위기 조성 4개 읍면동 대상 자체 설치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추석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불거리와 사전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읍면동 허수아비 설치를 추석연휴 전에 완료하고 사전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축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읍면동 허수아비 테마존은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난 7월 공모제를 실시, 공모에서 선정된 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허수아비를 제작해 최근 설치를 완료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허수아비 테마존은 전통 농경문화를 테마로 하고 있는 지평선축제의 대표 콘텐츠로 읍면동 특색에 맞는 허수아비를 테마로 자체적으로 제작해 설치하

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올해는 부랑, 광활, 요촌, 교월동이 선정돼 각 읍면동 지역특색을 표현하는 허수아비가 설치됐다.

특히 '어벤져스 줄다리기'로 표현된 교월동 허수아비는 교월동에 나타난 어벤져스와 교월동 허수아비들의 입석줄다리기 한판!이라는 테마로 서양의 캐릭터를 허수아비로 구현해 세계로 도약하는 지평선 축제의 의미를 부여했고, 동양과 서양,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특색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허수아비라 그런지 정감 있고 우리 김제를 잘 표현해 준 것 같다.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이 가족들과 함께 축제장에 오셔서 미리 축제를 즐기고 편히 쉬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 방조제 불 밝힌다 전 구간 가로등 점등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심현섭)은 세계최장(33.9km) 방조제 도로 구간의 중앙분리대 및 교차로 등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대한 교차로 및 곡선구간 등 일부구간 점등에서 전 구간점등으로 지난 21일부터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로등 점등 확대는 새만금 방조제 도로 이용객들의 증가 및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 주변지역 관광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반인들의 방조제 주변 다양한 볼거리를 충족하기 위해 전 구간으로 가로등을 확대하게 됐다.

가로등 점등시간은 방조제 도로 이용객들의 안전한 이용 및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일몰 이후 일출 전까지 자동으로 점등 할 계획이다.

사업단에서는 지난 3월 새만금 33번터의 전장대를 일반인에게 개방해 신시도 등 방조제 외곽과 새만금호 및 국내 최대 유압식 배수갑문인 높이 15m(아파트 5층)와 폭 30m(도로 왕복 10차로)인 10개 수문 2열 규모인 신시배수갑문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대한민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신항만 예정 부지 및 방조제 바다쪽의 고군산군도 등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게 됐다.

심현섭 단장은 "전북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께서 야간에 방조제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간으로 가로등을 점등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모악산에 핀 상사화

모악산 상사화 절정 '탐방객 유혹'

입구-대원사 등산로까지 붉은 꽃무릇 장관 이뤄

전북의 명산인 모악산 도립공원의 입구에서 대원사까지 이르는 등산로에 붉은 꽃무릇으로 장관을 이루는 상사화의 자태가 탐방객을 한층 유혹하고 있다.

완주군은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모악산 등산객의 편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그동안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주고 있다.

상사화가 심어진 구간은 등산로 입구에서 대원사까지의 도립미술관 뒤 산책로변 등 약 1.5km 구간으로, 면적으로는 6,400㎡다.

군은 이 구간에 총 22만7,500본의 상사화를 식재한 한편, 잡초 및 잡목 제거 등 주변기반 정비를 추진했다.

한국이 원산지인 상사화는 보통

8월부터 10월까지가 개화시기이며, 붉은 꽃무릇으로 활활 타오르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꽃이다.

특히 잎은 잎대로 피고, 꽃은 꽃대로 핀다고 해서 '이룰 수 없는 사랑, 이뤄지지 않는 사랑'의 꽃말을 가지고 있다.

모악산 등산로변에 식재된 상사화는 번식력이 강해 앞으로 전북의 명산인 모악산의 또하나의 명물로 탐방객으로부터 더욱 더 사랑을 전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2018년 올해에도 사업비 8억원을 들여 모악산 도립공원 생태복원과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탐방로 2km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군 시설공원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모악산 등산객의 편의와 많은 즐길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특화사업 수료

말랑말랑 두뇌건강 프로젝트 어르신 대상 7월~9월 진행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치매안심센터의 지리적 편중에 따른 이용인원 제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특화사업으로 '말랑말랑 두뇌건강 프로젝트'를 5개소(광활, 죽산보건지소, 대동, 백학, 불로보건진료소)에서 치매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각각 12회씩 진행하고 성황리에 수료했다.

특화사업 '말랑말랑 두뇌건강 프로젝트'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약 달력을 만들며 투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예, 만들기, 원예치료 등을 통해 소근육 운동기능과 집중력 향상을 도모하고, 퍼즐 맞추기, 노래교실, 웃음치

료, 근력강화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두뇌도 깨어난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희 보건소장은 "김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만의 독창적인 특화사업을 진행해 차별화된 치매교육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치매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해소해 치매예방을 통한 노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앞으로도 또 치매예방교실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N.S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